

수도교회와  
스테인드글라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저녁햇살이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글라스가

조각 조각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 조각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정호승, 스테인드글라스, 2007

여기서 시인은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왜 자기 자신이 깨져야 하는지를 알겠다'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왜 깨어져 있는지를 알 때와 자아중심주의를 해

체시킬 때에 비로소 은은한 빛을 발하는 스테인드글라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산산이 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깨어지고 흩어진 심령을 안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으로 잘 섞이고 어울릴 수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나할 것 없이, 마음과 감정에 나름대로 깨어진 조각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고통과 근심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마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깨어진 한 조각이 깨어진 또 다른 조각들과 어우러지면, 빛이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며, 전혀 새로운 예술품으로 거듭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요 11:25-26), 빛들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약 1:17-18).

우리 교회가 2008년 말~ 2009년 중반에 걸쳐 예배실 창문들을 스테인드글라스로 바꾸며, 천장과 벽을 새로 칠하고, 제단에 새로운 십자가를 걸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로 협력하였으며, 김종덕 장로

남-최완영 권사님, 최형식 장로님, 서상준-김원선 성도님, 김원정집사님, 김원용집사님, 천경옥-한은경집사님 등 여러 분들이 특별헌금을 하셨습니다.

이에 스테인드글라스 각각의 신앙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정현진 목사





## 세상과 인류전체를 품에 안는 복음서

교회는 예언자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 받은 영감에 따라 복음서를 상징하는 그림을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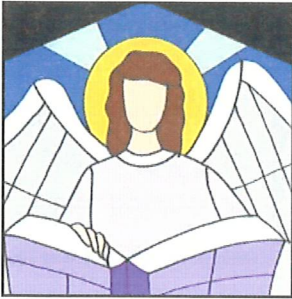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겔 1:10, 표준새번역; 자세한 내용은 1:4-20; 10:14; 41:19을 참조).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시다(계 4:7, 표준새번역; 4:6-8 참조).

성서의 이런 전통에 따라, 교부 리용의 이레니우스

성인(?-202)은 에스겔 1:10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선포에 연결시켰다. 곧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모양이 그리스도의 핵심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위엄은 사자가, 제사장직은 황소가,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이, 그리고 영적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독수리가 각각 나타낸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 네 가지 모습을 각각의 복음서에 반영시켰다. 곧 마태복음은 사람으로, 마가복음은 독수리로, 누가복음은 황소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자로 표시하면서, 이를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네 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히에로니무스 성인(4세기)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레니우스 성인과 다르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을 덧붙임으로, 이 상징은 교회 안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4세기). 그는, 이레니우스 성인의 모범을 따라, 에스겔서 4:10과 요한계시록 4:7이 복음서가 네 권이며, 서로 똑같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핵심을 보여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는 마태복음 주석서문에서 요한복음 1:1의 '하나님 말씀'을 곧 복음이라고 보면서, 에스겔서 1:10의 네 가지 모양이 신앙전통에서 있는 교회에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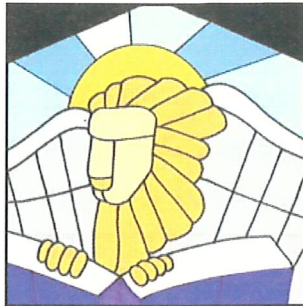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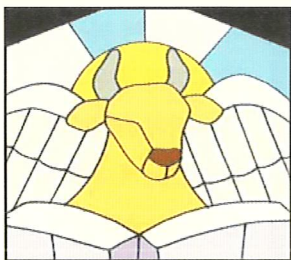
복음의 전체 역사가  
한 인간의 출현으로  
써 시작되었다는 사  
실을 첫 번째 복음서  
인 마태복음이 보여  
주고 있다 마 1:1.

이리하여 마태복음서는 사람으로, 마가복음서는 사  
자로, 누가복음서는 황소로,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독  
수리로 각각 상징되었다.

그리스 정교회의 영향 아래 이것은 13세기부터 판  
하나에 모아서 성화로 그려지거나 tetramorph, 하나씩  
따로 따로 그려져 말씀묵상과 신앙교육 자료로 쓰여  
졌다.

이 상징들은 각 복음서의 첫 부분에 받는 인상에 착  
안하였다. 곧 마태복음  
은 예수님이 유다(다  
윗)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을 증언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라).





마가복음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의 웅장한 목소리에 이  
어 첫 부분에 광야에서  
크게 외치는 세례자 요

한을 소개하고 있기에 그를 크게 부르짖는 사자로 나  
타낸다.

누가복음의 첫 부분에 제사장 스가라가 성전에서 예  
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데 착안하여, 예배에서 가장  
귀하게 봉헌되는 제물인 황소로 표시되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말씀(로고스)에 대한 원대하고 깊  
은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에 비유  
되었다.

숫자 '4'는 흔히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  
므로 복음서가 4권인 것  
은 결코 작은 숫자이거  
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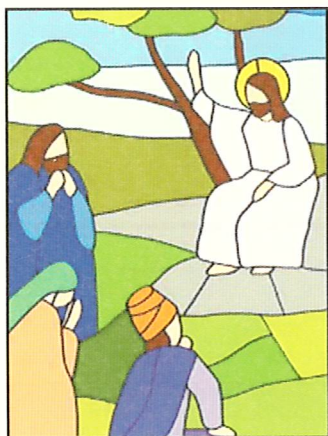
다. 이는 4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  
고난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  
으며, 그 능력과 은총의 폭과 깊이와 높이는 우주만물  
과 온 인류에게 미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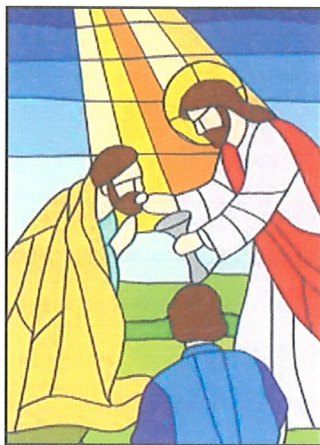
## 말씀, 떡-포도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되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  
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이요, 마 5:1-3



마태복음 5-7장을  
가리켜 우리는 산상  
수훈 Sermon on the  
Mount이라 부른다.  
이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찾아온 사  
람들에게 가르쳐주  
신 주옥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다. 마

하트마 간디를 비롯하여 비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산상수훈을 읽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결코 감동감화를 받거나 머리로 받아들이기만 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는 가르침만 보더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따르려면,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이라는 신앙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만 해도, 사랑과 중보기도는커녕, 오히려 속이 부글부글 끓기 쉬운 사람이기에 더욱 그렇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성만찬에 성심성의껏 참여하라고 권하고 싶다. 비록 교파마다 성만찬을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신비롭게 역사하여,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시키며, 평화와 사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말씀과 함께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게 만드는 은총의 선물이다.

성만찬은, 비록 글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말씀의 또 다른 형식이다. 곧 성령님이 성만찬 떡과 포도주에, 그리고 성만찬에 초대받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작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진지하게 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로 화<sup>1</sup>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로써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3-4번 반복해서 듣는다: 1) 교육문; 2) 성서봉독; 3) 말씀증언 = 설교; 4) 성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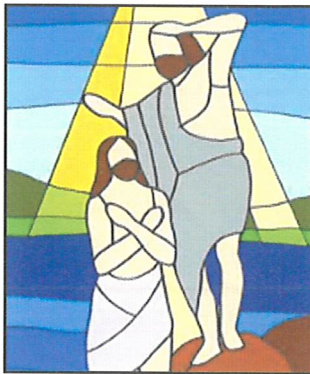




## 세례 받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그 때에 예수께서 ...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  
노라 하시니라 막 1:9-11.

세례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룩한 의  
식이다. 세례 받은 자  
의 이름은 영원히 지  
워지지 아니하고, 하  
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나라에 받아



들어지는 보증이 된다. 이런 뜻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자아의식이 생겨나게 만든다. 이 자아의식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는 어리석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제자들이 그(=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막 6:49-50.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분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이야기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단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

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물 위로 건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물에 빠졌다. 그 베드로를 주님은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 이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위력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자기 인생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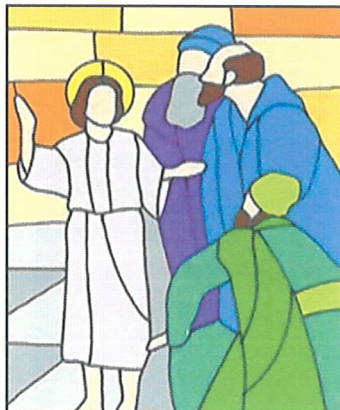


## 예수님 어린 시절, 삭개오와 만나는 예수님

그(=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  
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눅 2:46-47.

12살이 되던 해 유월절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 행사가 끝난 후, 그 부모님은 아들이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생각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사흘이 지난 뒤에야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깜짝 놀란 부모님이 오던 길을 되짚어 갔다. 요셉과 마리아는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결국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소년 예수가 거기 앉아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모의 에타는 심정을 아랑곳 하지 않고 태평할 뿐만 아니라, 당대에 내놓으라는 율법학자들, 수염과 백발

이 성성하며, 경험  
이 풍부하고 배움  
이 깊은 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놓고  
토론하고 있었다.  
그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데,  
율법학자들이 깜  
짝 깜짝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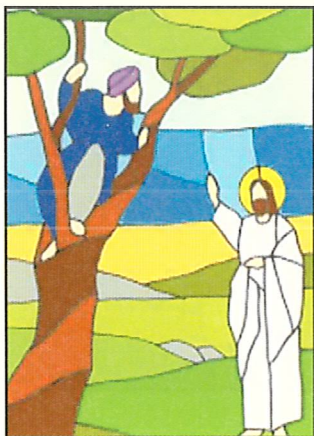


소년 예수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옳은 대답을 하는지,  
지혜가 넘쳤던 것이다.

어머니가 다가가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하자, 어린 예수는 “어찌하여 나  
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주 사랑하면서도 그 생명을  
자켜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창 22:1-14

예수님 부모님도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아들의 보호  
자가 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이것이 사람이다. 그래  
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



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  
휼히 여기지 않겠느  
나 그들은 혹시 잊을  
지라도 나는 너를 잊  
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5. 예수님은 이 세  
상 그 무엇도 자신을  
보호하거나 인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늘

아버지 집에서 머물며, 하늘에서 오는 생명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나갔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  
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9-10.

찬송가 96장입니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  
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

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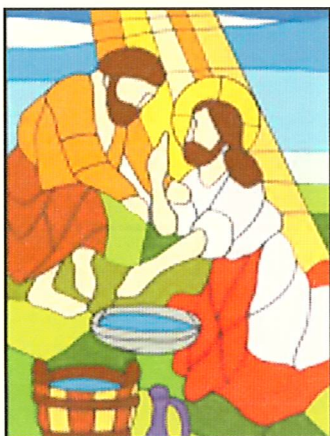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은 진정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요, 상처입은 사람, 보이지 않는 눈물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의 벗이다.





## 제자들 발을 씻기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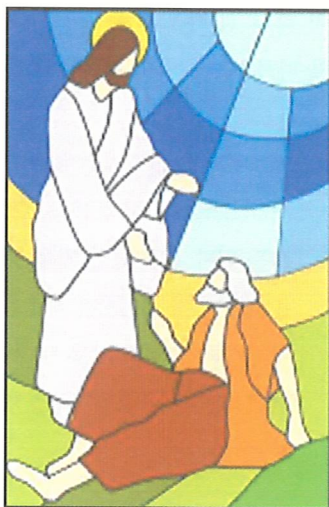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기 시작하셨다 요 13:4-5 새 번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는 남을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마아틴 루터는 신앙인을 이렇게 정의 하였다. 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 어떤 사람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다; ②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섬기는 중이다. 그렇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듯이, 비록 사라질 것이라도, 세상에서 자신이 만나는 한명 한명을 복음적으로 섬기는 태도가 없다면, 그 역시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38년 된 병자)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 5:8-9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

이 하신 일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교회와 교우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 4:23-24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인생살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모자이크 같은 우리 생활 속에 상처입고 깨어진 삶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사실 우리는 한 편으로는 다른 이로부터 상처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를 입힌다. 그렇지만 주 성령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치유의 도구, 곧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이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며, 이해하며, 기도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성령강림, 하나님 어린 양



대홍수가 끝날 무렵 노아는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 보내고 다음엔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이 모습이 오늘날까지 평화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희생제물로 쓰이는 새이다(레 1:14). 비둘기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리기에 인간의 슬픔을 비둘기의 소리에 비유하기도 한

다사 38:14. 또 아가서는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비둘기에 비유한다(1:15; 2:14; 4:1. 예수님은 뱀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순박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마 10:16. 더 나아가 비둘기는 성령하나님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2.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이 말은 본디 곁에 함께 있는 자,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자, 동반자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가를 보면 된다(갈 5:19-21. 예수님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듯이(눅 6: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이웃과 자신의 관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에 다 해당되지만, 굳이 나누어 보자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을 열매 : 사랑, 희락(기쁨), 화평
- 2) 인간관계에서 맺을 열매 : 오래 참음, 자비, 양선
- 3) 자기 자신 속에 맺을 열매 :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 안에 살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곧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사에 일부러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신앙적 의지 말이다.

양은 성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다. 구약시대 흠 없고 순진한 1년 된 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대표적

인 제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날 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sup>리틀</sup>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굽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다<sup>출 12:6-11</sup>.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은 먼 여행길을 떠나는 준비된 종의 자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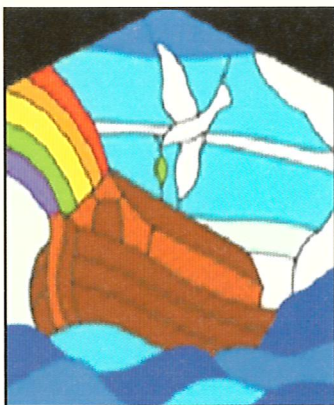
(양치는) 목자라는 표현은 성서에 백번이 넘게 나온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아모스 등은 목자였으며, 리브가<sup>창세 29:9</sup>, 그리고 이드로의 딸들도 목자였다. 목자는 양을 밤에는 우리에서 돌보고, 낮에는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한다. 목자는 아침에 양에게 풀과 물을 먹이고, 태양이 뜨거운 한낮에는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양을 이끈다<sup>야 1:7</sup>. 저녁엔 우리로 데리고 돌아와 열병에 걸렸거나 상처를 입은 양을 돌보곤 한다. 양에게 목자는 공급자요, 인도자요, 보호자다.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에 양은 '비유'로 많이 나온다. 그것은 순종하는 무리로, 화해의 제물로, 그리고 목자이신 여호와와 보호아래 있는 인류로 비유되곤 한다. 그 털은 더럽혀지지 않은 흰색으로 순결한 신앙, 치유-회복된 신앙인에 비유되기도 한다<sup>다사 1:18</sup>.

양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님을 상징한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사실에 착안하여,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고 증언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였다(벧전 1:19). 이처럼 예수님은 희생적으로 사역하신 목자이자, 인류를 위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시다.



## 노아의 방주, 십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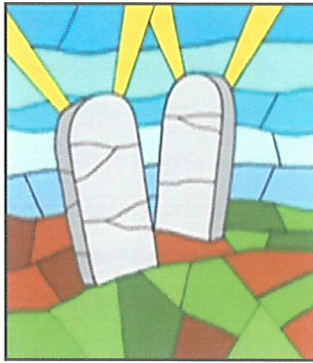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  
들들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내  
가 내 언약을 너  
희와 너희 후손  
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  
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 9:8-11.



노아 시대에는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한탄하실 정도였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피조세계를 새롭게 건설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배를 지었다. 이 배가 노아의 방주이다창6장.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비록 차갑고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사랑, 소망의 정신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된다.

성서기록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 135m, 높이 14m, 폭 23m 인데, 오늘날에도 이런 비율로 배를 지으면, 폭풍우나 태풍(파도)에 가장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비율은 오늘날에도 조선업의 기초가 되고 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20:2-17.

히브리말로 십계명은 그냥 '열 마디 말씀'이란 뜻이  
 다. 이것이 그리스 말을 거쳐 라틴말로 번역되면서,  
 데칼로구스decalogus로 옮겨졌다. 이 명칭이 교부 이  
 레니우스 성인 때부터 (주후 2세기)십계명을 일컫는 말  
 로 쓰였다. 영어권에서는 이 라틴말 그대로  
 Decalogue로 또는 10 Testament로 번역하여 사용하  
 고 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2-17과 신 5:6-21에 나온다.  
 이것은 가장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  
 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계명이다. 3천 4백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계명은 앞으로 인류가 존속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그 내용이 케케묵은 옛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 ① 인생의 본분(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가 두지 말라) ② 생활자세(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③ 경건언행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④ 시간선용(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⑤ 기본적인 인륜(네 부모를 공경하라) ⑥ 생명존중(살인하지 말라) ⑦ 정조엄수(간음하지 말라) ⑧功德공익(도둑질하지 말라) ⑨ 신실한 처세(거짓 증거하지 말라) ⑩ 자기절제(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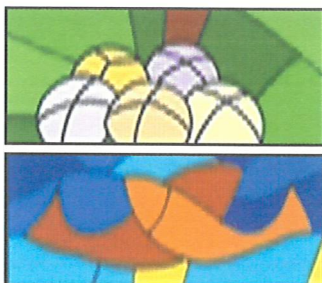


## 오병이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께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과  
 오병이어의 기적, 병  
 을 고치시는 기적,  
 예수님의 부활과 승  
 천 및 재림을 믿는  
 신앙은 일맥상통하



지만, 똑같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세상 사람치고, 비  
 록 그대로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  
 실 이 정도 고상하고 수준높은 말씀은 성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경이나 코란, 그리고 기타 팬츠는 책  
 에 얼마든지 들어 있다. 그러나 기적이나 예수님 부활  
 을 포함하여 죽은 자의 부활, 천국과 영생을 믿는 신  
 앙은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인데, 이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보기 어  
 렵다.

기적을 믿는 신앙이란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다. 이런 뜻에서 신앙이란 자신의 경험, 이성, 지식, 지각으로 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킨다.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을 체험하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옛날 다윗은 불레셋 손에 있던 법궤를 되돌려주신 하나님 기적 앞에 너무나 기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 뛰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은 기적은 없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죄송스러워해도 하지 못한다.



## 루터의 장미십자가

루터는 루터의 장미  
혹은 장미십자가라 불  
리는 이 문장紋章을 만  
들어 “내 신학의 특징”  
이라고 불렀다. 그리  
고 여기에 자세한 설  
명을 덧붙였다(1530년  
7월 8일).



이 문장에는 우선 십자가가 들어있다. 그것은 검은 색이데, 심장 가운데 들어 있다(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한편으로 이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파괴적인 부분, 어두운 그늘, 내면의 쓴 뿌리를 가리킨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뜻이다(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

리신 보혈이 그 영혼을 맑게 씻어서, 세상의 검은 유희  
과 죽음에게 굴복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다(롬 1:1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에서 검은색은 죽음이 아니라 거둬냄과 생명  
및 생명력을 가리킨다(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  
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  
리라 욥 23:10 참조).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심장이 하얀 장미의 중심에  
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기쁨, 위로 그리고?평안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흰색은 그런 신령한 것  
들을 상징한다. 또한 이 흰색은 성령과 천사를 가리  
키기에, 루터는 붉은 장미가 아니라 흰 장미를 선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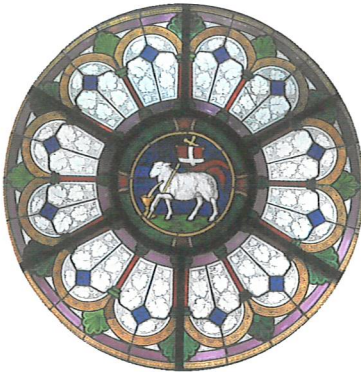
믿음은 우리를 평화와 기쁨이 꽃피어나는 장미의 뜰  
로 인도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백장미는 하늘색 뜰을 배  
경으로 깔고 있다. 이는 성령과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  
과 육체가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  
으로 하늘에 들어가서 누릴 기쁨 안에 들어있다는 뜻  
이다. 물론 이 영원한 기쁨은 소망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기에,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았다.

금색 원이 이런 여러 가지 상징을 둘러싸고 있다. 금  
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비싸다. 곧 천국의 행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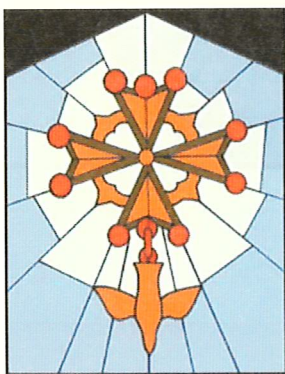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나 보물(재산)보다도 귀하다.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둥근 원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요약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다.



## 위그노 십자가

16~17세기에 세워진 개신교회에는, 초대교회처럼, 순교자의 피가 많이 묻어 있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공로주의 사상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 신앙의 기둥을 성례전에서 말씀으로 옮겨 세우는 개혁주의(개신교) 신앙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지키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다.



이런 일이 처음에 이태리에서 일어났다(왈도파, 장로교회의 선조). 나중에 프랑스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그 때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위그노파(개혁교회=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 1675년에만 가톨릭교회는 위그노와 50만 여명을 학살하였으며, 박해당하던 그들 중 일부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와 독일 등으로 피난을 떠났다. 박해와 냉대 속에 살아남아야만 했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만 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개혁신앙을 위그노 십자가 Hugenottenkreuz에 담아내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는 그들이 겪는 고난과 품은 소망이 녹아들어있다.

1688년 프랑스 남부 니메Nimes지방에서 완성된 이 십자가에는 삼각형 모양이면서 네 방향으로 퍼진 십자가(네 복음서를 상징한다)에 각각 두 개씩 열매가 열려서 모두 8개의 열매(진주)가 달려 있다. 이 8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마 5:3-10, 박해와 고난의 시절에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가리킨다. 삼각형으로 퍼져나간 십자가 안쪽에 백합꽃 네 송이가 피어있다. 이는 그 당시 남부프랑스의 상징이었으므로, 비록 자기들을 박해하는 나라지만, 신앙인과 조국이 땔레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백합꽃잎이 12개인 것은 초대교회 12사도를 가리킨다. 이 십자가가 전체적으로 붉은 색인 것은 한편으로는 고난과 시련, 순교의 피눈물을 가리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여 빛을 내며 타오르는 불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주로 된 끈에 따라 성령님과 이어져 있다. 곧 성도의 눈물과 고난을 성령님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갈 5:22-24,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떤 결정체 모양이다. 이는 소금(혹은 소금의 결정체)을 떠올리게 한다. 곧 교회와 신앙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과 그 속에 녹아지는 듯 보이면서도 그 맛과 기능을 잃지 않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도전해온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믿음은 과연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냐고.

찬송가 336장 1절이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 수금쳐는 소년 다윗

어떤 방안 풍경이  
다.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왕관을  
머리에 쓴 건장한  
장정이 잔뜩 찌푸  
린 인상으로 앉아  
있다. 그 때 방문이  
열리고 아직 앓던  
기가 채 가시지 않



은 어떤 소년이 들어왔다. 그 손에 수금(하프)이 들려  
있다. 그 장정 맞은 편 방 한 구석에 앉은 그는 손에 든  
악기를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우아하고 잔잔  
한 선율이 처음에는 방안에, 그 다음에는 서서히 사람  
들 가슴에 스며들듯 말듯 울려 퍼졌다. 그러자 오만상  
을 쓰고 있던 장정의 표정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였

다. 시냇물이 흐르는 듯, 바람이 나뭇잎에 스치는 듯  
편안한 선율이 계속 이어지자, 그의 얼굴은 악기에서  
울려나는 곡조처럼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보니 참 잘 생긴 얼굴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얼굴에는 악마의 모습이 어른거렸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싹게 환해졌고, 아니 천진난만한 웃음기  
가 서려 있었다.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죽 사울이 상쾌  
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노래(찬양)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요즈음 상식에 속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예배에 음악을 도입하였다. 하나님을 향하  
는 영혼은 경건하면서도 즐거운 모습을 노래나 음악으  
로 드러낸다. 다른 한편, 노래 부르는 영혼에는 하나  
님이 선물로 주시는 내적·영적 고요와 평화가 자리 잡  
는다. 세상일에 지치고 힘들 때, 고단하고 버거울 때,  
조용히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읊조려보라. 그러면 하  
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의 휴식이 찾  
아올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에

게는 그 영혼 깊은 속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고, 찬양은 주변 사람을 주님 평화로 물들게 하는 등 옆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뜻에서 찬송(찬양)은 위와 아래, 좌와 우, 그리고 내면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 은총이다. 이는 오늘날 뮤직테라피(음악치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물론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치유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성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는 강복(降福)하시는 것을 가리켜 '복(축복)'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축복하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하였다. 곧 복과 찬양에는 같은 낱말이 쓰인 것이다. 우리는 찬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악기나 노래, 곧 음악을 떠올린다. 이런 뜻에서 다윗의 하프 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사람(사울)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사울 임금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나중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지라, 한편으로 낯설고 미숙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견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저런 일이 그에게 상처로 굳어졌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안은 사울은 점차 자신이 타고난 용맹

과 총명을 잃어버리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데 온 힘을 쏟아붓는 등 불필요한 일에 정력을 낭비하였다.

사실 다윗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아버지도 그를 무시할 정도로 냉대를 당하였거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산골에서 목동으로 자라나, 한 국가를 다스릴 경륜을 배울 기회가 적었으며, 장인에게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하게 견제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상처와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로 만들었다(삼상 23:14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래서 그는, 사울과는 달리, 치유를 받았으며, 마침내 회복되는 복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주어진(받은) 상처를 사울과 같이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한편에서는 지난 날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신뢰하는 믿음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답답한 속을 달래며 연주하던 악기(음악)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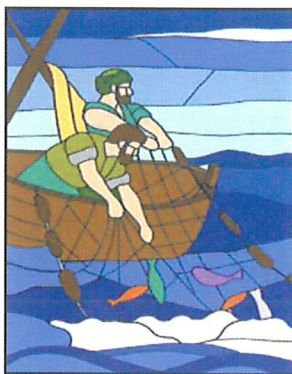




## 사람 낚는 어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 4:18-20.

예수님과 전도-선교 사역은 떼레야 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예수님 활동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또 닦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도-선교는 신앙실천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닦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입만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  
께 있으리라 마 28:19-20.

특히 전도사역은 교회가 처음 출발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2천여년 동안 교회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특권이자 의무이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인 반면에, 전도는 상대방을 자기 울타리(집) 안에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뜻에서 선교사역과는 달리 전도활동에는 자기정화와 자기수련 과정이 동시에 들어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환대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흠 잡힐 말이나 행동을 스스로 삼갈 뿐만 아니라,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말과 행실을 의식적으로 골라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처지나 형편에 앞서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며 배려하기 때문이다.

전도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그 사람이 죽거나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 곧 그 내부의 인간관계나 직분반응, 신앙활동의 방향 등 모두를 만족시키기기 정말 어려운 문제로 시끄럽거나 속으로 끄끄 앓는다. 사실은 그 사람이 죽어 사라져도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에 의해 끊임 없이 비슷한 문제가 되살아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배를 받으며, 스스로의 교양이나 능력으로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요일 2:16). 그러나 전도에 힘쓰는 신앙인과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이 가장 우선시되기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혹시 있더라도, 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1) 과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보탬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2) 그리스도의 사랑과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취향을 절제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이로써 그들은 생겨나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뛰어넘으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식'에 이끌리는 신앙인과 교회는 행복하다. 자신들이 안고 있거나 겪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 무엇일지 아는 것이 복

이요, 믿음 안에서 발견한 그 소중한 것을 향해 나아가  
며, 이루기에 진실로 복이 있다. 이런 신앙인과 교회는  
‘도랑치며 가재도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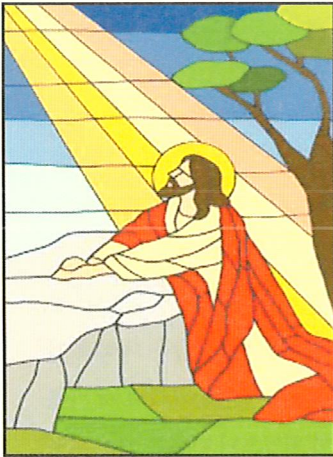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신앙적인 노력  
없이 는 결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사  
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힘쓰는 과정, 곧 전도에 힘쓰는  
신앙이 역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만들어 낸  
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사람을 낚는 어  
부가 되는 것은 둘이면서도 하나요, 그 어느 것이 먼저  
라고 말할 수 없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인 것  
이다.



## 겻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  
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  
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  
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26:37-39.

최후만찬 뒤에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다. 이때 예수  
님은 고민하며 슬퍼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가만, 누가 고  
민하고 슬퍼하였고, 누가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라고요?



시 22:14-15라면,  
이 때 예수님 심정  
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될까?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  
졌으며 내 마음은 밀  
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  
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에 시적인 은유와 비유로  
표현된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  
생하였는지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타나 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마  
26:59-60 ...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  
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마 26:67.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날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당했  
던 일들이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아주 또렷하게 새  
겨져 있다. 그 때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호흡이 불규

척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얼굴에 그늘이 생긴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차갑게 냉대하던 어떤 사람의 얼굴과 말투가 가슴에 깊이 못박혀 있다. 지금은 그 일이 이미 극복된 지 아주 오래되었지만, 그 사람 얼굴을 대할 때마다 아직도 그 때 그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경우, 그 몸에는 상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그 마음씨와 말씀에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며, 평화를 안겨주셨다요 20장. 예수님은 진정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

마 26:39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기도 끝에 내린 마지막 결론이다. 그렇다. 기도는 자기 마음과 계획을 주님께 말씀드리거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소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 주어질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형편을 말씀드리는 한편,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받아들이며, 온전히 순종하는 데로 나아간다. 이렇게 기도를 탄원이나 하소연하는 기회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 목적을 자기

의 길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 11:36.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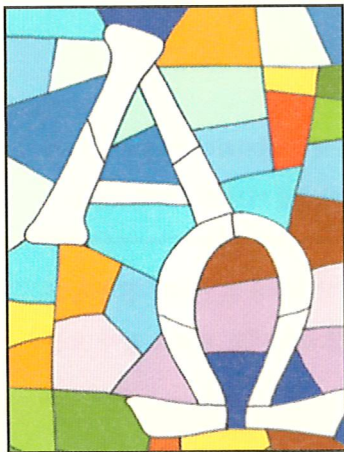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계 4: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 22:13.

이 상징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자( $\alpha$ )와 끝 자( $\omega$ )에서 따온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진행자이며, 완성하실 분임을 가리킨다.

일찍이 사도 바울 성인이 전하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라는 뜻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 좋은가, 저녁형 인간이 좋은가 라는 논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에 매

이기보다는, 하루의 시작과 거기서 지내는 시간 시간들, 그리고 그 하루의 끝 시간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 하루만이 아니다. 한 해가 끝나는 시간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에, 그리고 그 한 해가 지나가는 하루 하루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잘 때나 깰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순간순간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서, 서머나교회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8절)”라고 하였고, 버가모교회에게는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sup>12</sup>”고 하시면서, 한결같은 주님 그리고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서머나교회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였고, 버가모교회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두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핍박 혹은 박해 앞에서,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원수를 심판하  
실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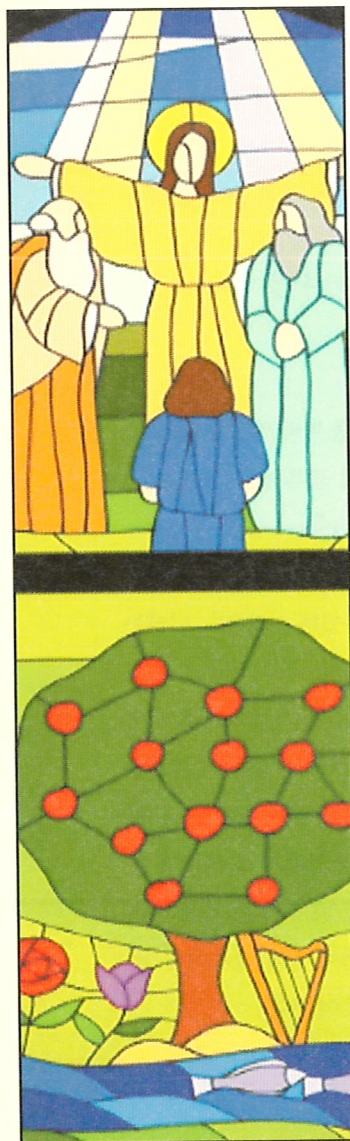




## 복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  
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3.”

시편 1편은 ‘복되어라(혹은 복있는 사람은)’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본디 아카드어(아람어, 에디오피아어에서도) ‘발자취 또는 발자취를 따르다’는 뜻을 지닌 ‘아와르’에서 왔다. 곧 여기서 말하는 복(행복)은 ‘복을 받을 만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을 깨끗하게 걸어간다’는 뜻이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시 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모습을 시편 1절과 2절이 보여준다:



## 1절

① 악인(죄인)들의 꾀(권유, 술책, 의도, 목표)를 뒤 따르지 않으며; ② 죄인들이 길(선례, 발자취)에 서지 않고; ③ 오만한 자(거만한 자)들의 자리(남을 헐담하는 자리, 남을 깎아 버리며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자리, 악한 계획을 모의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1절에는 사람이 죄에 빠져드는 모습이 참 실감나게 나타나 있다. 사람은 보통 처음부터 죄악에 적극 가담하거나 앞장서지 않는다. 그저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걸음 뒤에서 추이를 지켜보며 천천히 따라 간다. 그러다가 마치 잠깐 동안만 (이

일 한 가지가 끝날 때까지만 머물 것처럼, 그 (나쁜)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 발을 멈추고 선다. 이래서 서서히 나쁜 일의 동조자가 되어간다. 그러더니 그 현장 (나쁜 일이 꾸며지고 실행되는 현장) 에 아예 한 자리 차지하고 털퍼덕 주저앉는다. 여기서부터는 그 나쁜 일에 동조자일 뿐만 아니라, 주도자내지 적극적인 활동가가 된다. 이 과정을 1절은 '따르다 (뒤쫓는다) - 서다 - 앉다' 라는 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다.

## 2절

① 여호와와 울법(말씀, 가르침)을 즐거워하며(되새김질하며, 곱씹으며) ② 그의 울법을 주야로(끊임없이, 늘) 묵상하도다 (중얼거리도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도다).

탈무드에 “향수가게를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그 냄새가 묻어나온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렇다. 죄된 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을 들락날락하면, 그 죄가 그 말과 행실에 묻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드나들면, 그 말과 행실에 행복이 묻어난다.

스테인드클라스 해설 ⑫에서 이미 밝혔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복이 아니다. 비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주어진 문제에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곧 복이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 26:37a 라고 기도드리셨지만, 자신을 매우 슬프게 하고 죽음같은 처지에 빠뜨리는 그 문제(십자가와 죽음당함)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b 라고 기도드리며, 자신을 매우 고민스럽게 만들고 죽게 하는 일에 신앙적으로 반응하셨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은 ‘가장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라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시편 1편은, 비유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복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에 관계된 것에게는 물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와 나비, 굽이굽이 흐르는 강, 길가의 돌멩이, 산과 들의 풀과 나무 등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시 145:9. 이런 뜻에서 우리 교회 정면 왼편에 그려진 스테인드클라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구체



적으로 사람과 자연과 문화)을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장식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 보살핌 아래 있기에 ...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아론과 그 후손)에게 다 음과 같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 하셨다.

24 여호와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  
하며

25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7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 6:27라고 말씀하셨다.

##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주님

사도 바울 성인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  
하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  
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승천으로 예수님은 우리 구세  
주(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  
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  
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  
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2는 고백을 마음에 담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는 고난과 시련, 억울함과 모욕 등 인생살이에는 겪는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외롭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을 누구보다도 더욱 고독하게 겪으신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모든 고난과 수치를 부활과 영광과 기쁨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신앙적 인생을 의미한다.

물론 사람이 이런 신앙, 이런 인생관으로 생활하기로 굳게 결단을 한다면, 그런 의지나 의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는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리와 사랑의 영, 정의와 공의의 영,



은혜와 은총의 영, 격려와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  
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속 4:6.**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복속(服屬)시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8-29 이런 뜻에서 우리 교회 정문 오른쪽에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과 부활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